

		보도자료	
보도일시	배포시	배포일시	2019. 5. 28.(화) 16:30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장 심규진 (044-215-2830)	담당자	손정혁 사무관 (044-215-2833) f15strike@korea.kr
	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장 이형렬 (044-215-7610)		심수현 사무관 (044-215-7613) soohyun94@korea.kr
	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장 고재신 (044-215-5550)		권나림 사무관 (044-215-5554) narim0326@korea.kr
	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장 조현진 (044-215-5170)		서병관 사무관 (044-215-5171) seobk@korea.kr
	기획재정부 금융운용계획과장 신준호 (044-215-7170)		이만구 사무관 (044-215-7171) icarus20@korea.kr
	기획재정부 산업정보예산과장 김태곤 (044-215-7310)		구정대 사무관 (044-215-7312) koojeongdae@korea.kr
	감사원 적극행정 지원담당관 정의탁(02-2011-3731)		박종민 부감사관(02-2011-2736) pcmini@korea.kr
	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장 조익노 (044-203-4040)		이영주 사무관 (044-203-4043) yjlee78@korea.kr
	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장 조경원 (042-481-4545)		윤성웅 사무관 (042-481-4382) swyoon21@korea.kr
	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장 최원영 (042-481-4383)		김성훈 사무관 (042-481-4485) kshbaedal@korea.kr
	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 김주화 (042-481-4416)		정미리 사무관(042-481-1649) mrjung13@korea.kr
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신진창 (02-2100-2830)		조성조 사무관 (02-2100-2843) mutal01@korea.kr
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손주형 (02-2100-2860)		이한샘 사무관 (02-2100-2861) saem80@korea.kr

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개최

-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.28.(화) 16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「제2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」를 주재하였다.

-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는 정부부처(차관급)와 11개 정책금융기관들(부기관장급)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 안전에 대해 논의하였다.

* (정부부처) 기획재정부, 산업통상자원부, 중소벤처기업부, 금융위원회 (4개)
(정책금융기관) 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수출입은행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무역보험공사,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,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정보원, 한국성장금융, 한국벤처투자 (11개)

①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인센티브 체계 개편방안

②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* 활용 및 발전방안

*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지원 현황 및 이력 등을 총괄·공유하고, 지원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

③ 정책금융기관 혁신성장 지원실적 및 우수사례

- (별첨1)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

- (별첨2) 정책금융기관 혁신성장 지원실적 및 우수사례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별첨

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

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.
일부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☐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시작하겠음
- ☐ 최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, 미·중 무역갈등 심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
 -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,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
 - 보다 생산성이 높고 혁신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하고, 여기에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꼭 필요함
- 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 혁신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
 - 올해는 작년 대비 5.6조원 확대한 53조원을 목표로 설정하였고, 1분기 중 작년 대비 1.6조원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차질 없이 이행 중
- ☐ 그러나, 리스크가 높은 혁신분야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감사·기관평가·배당·예산심사 등은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자금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
 - 자금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과 기관간 협업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
- ☐ 이에 정부는 4가지 방향에서 개선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

① 첫째로, 정책금융기관을 둘러싼 감사체제를 전면 개선할 것임

① 먼저 금융감독원 감사시

新산업 지원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면책 받을 수 있도록, 금융기관 감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음

- 부정청탁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제재감경·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 해 나갈 것임

②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폭넓게 활용해 나가겠음

-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지원에 대해서는, 관계부처가 감사원에게 정책적 목적 등에 따른 것임을 확인해 주는 등 적극 협조할 예정
- 감사원도 감사기간 중 신청 받은 면책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면책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계획

③ 소관부처의 감사와 정책금융기관의 자체감사에 있어서도,

일상적인 사업관리 실태보다 소극적, 보수적 업무행태의 개선에 중점을 두는 등 감사방향을 전환해 나갈 방침

- 지난 5.14일 공공감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적극행정 면책 요건이 완화된 만큼 향후 정책금융기관별 자체 감사에서도 적극 활용할 계획

② 둘째로, 혁신성장 지원에 대한 평가, 배당, 예산 등
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하겠음

① 우선, 정책금융기관의 평가 기준을
혁신지원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겠음

- 그린카, 스마트집, ICT 융합산업 등 미래산업 지원에 대한
평가 배점을 확대하고,
- 맞춤형 금융지원 상품 개발 등 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,
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

② 다음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
배당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겠음

- 혁신성장에 대한 과감한 자금지원 계획시
이를 반영하여 배당금을 일부 감면해 주되,
- 계획대비 집행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
다음 해 배당금 징구시 가산하는 등
다년도에 걸친 환류체계를 구축할 계획임

③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·출연 예산소요 심사시에도
혁신성장 분야에 대한
지원 실적, 성과 등을 참고지표로 활용함으로써,

- 혁신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이 내실화되고,
중장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음

③ 셋째로,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*을 지속 확대·개선하여
정책자금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

* 혁신성장 분야(9대 테마, 45개 분야, 300개 품목)에 대한 지원현황을 공유하고, 지원
효과를 분석하는 6개기관(산은, 기은, 수은, 신보, 기보, 신용정보원)간 통합 DB 시스템

① 금년중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무역보험공사도
인텔리전스 시스템 신규 참여를 완료하는 등
참여기관을 지속 확대하겠음

② 정책금융 투입에 따른 고용, 재무 등의 성과를 분석하는
기능 고도화 작업도 금년 중 완료할 예정임

④ 넷째로,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
자금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임

① 먼저 정책금융기관간 “혁신성장 금융지원 실무 TF”를 구성해,
주기적으로 운영할 예정

- 각 기관별 우수지원 사례를 공유하고,
기관간 연계지원 상품 등을 개발함으로써
정책자금지원의 성공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

② 정부에서도 혁신성장 우수 협업사례 담당자를
포상하는 등 기관간 협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

□ 그럼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음